

BooksReview 산책

New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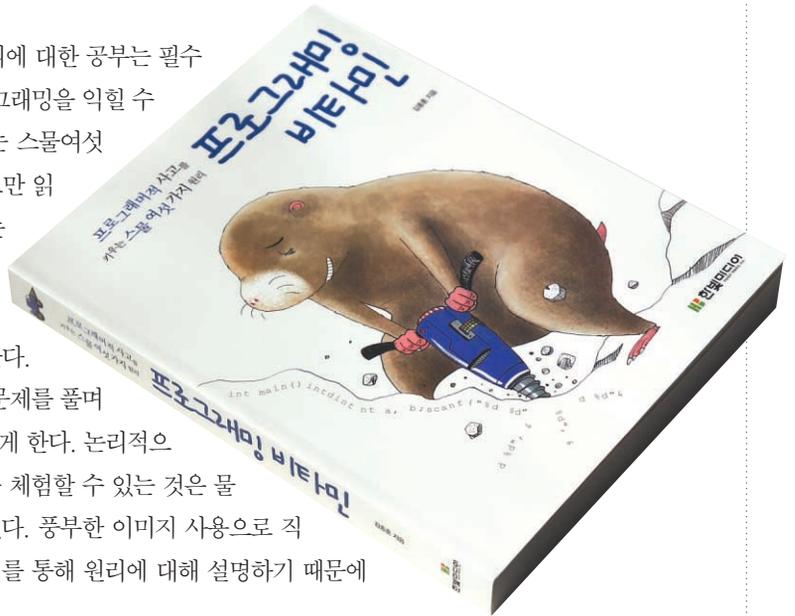
프로그래밍 비타민

전문적인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프로그래밍 원리에 대한 공부는 필수이다. 원리를 알아야 보다 쉽게 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프로그래머적 사고를 키우는 스물여섯 가지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들 원리는 가볍게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원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문제를 통해 먼저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독자들이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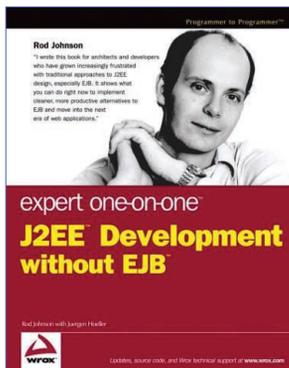
이 책의 학습효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문제를 풀며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 머릿속으로 깊이 새기게 한다. 논리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해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풀이를 통해 원리와 개념을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다. 풍부한 이미지 사용으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도 탁월하다.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컴퓨터 과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취업 준비생 및 프로그래머들에게 특히 유용한 서적이다.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이들 원리를 이해한다면 보다 탄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저/ 한빛미디어/ 360쪽/ 2만 2,000원



화제의 해외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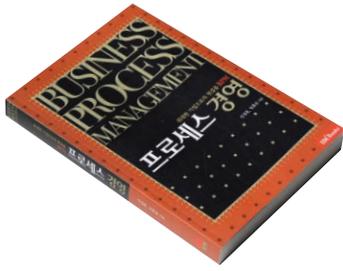
Rod Johnson, Juergen Hoeller 저/
Wrox
2004년 6월 21일 발행
\$39.99

Expert One-on-One J2EE Development without EJB

필자가 처음 EJB(Enterprise JavaBeans)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EJB는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은탄환과 같은 존재였다. 분산환경을 지원하는 EJB는 매우 훌륭해 보였으며,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무결하게 수행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필자와 동료들은 EJ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악몽과도 같은 야근과 빡빡한 일정 속에 추가인력이 투입돼야 겨우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었다.

필자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5,000여명의 직원이 인트라넷에서만 사용하는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EJB를 활용해 비즈니스티어를 구성했으며, EJB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BEA WebLogic 5.1과 HP Superdom이란 거대한 서버장비를 도입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시스템 아키텍처는 분명히 과도한 기술과 장비의 투입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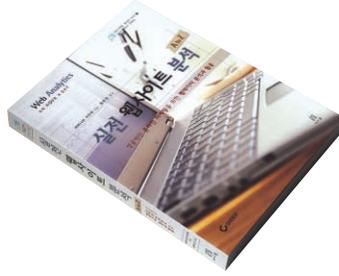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이 책을 통해 EJB를 활용한 프로젝트의 문제를 하나씩 명확하게 깨우칠 수 있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보다는 EJB의 이상적인 스펙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가 개발자들을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 집중할 수 없게 했고, 시스템의 복



프로세스 경영 : 위대한 기업으로의 첫걸음 BPM

성공적인 프로세스 경영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프로세스 경영』 또한 BPM을 도입, 성공적으로 프로세스 경영을 안착시킨 사례를 중심으로 BPM의 필요성, BPM 구축과정, BPM 기대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유사하게 적용한 사례를 제외하고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BPM에 대한 이해와 전체적인 시각에서 BPM 도입 및 구축에 대한 시각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경훈, 임홍순 저 / 성안당 / 388쪽 / 1만 5,000원



실전 웹사이트 분석 A to Z :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웹데이터 분석과 활용

이 책은 각종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서 비즈니스 의사 결정, 고객만족 성공 온라인 마케팅에 이르는 생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단계별 가이드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분석 전략의 바이블이다. 특히 아마존닷컴의 별 다섯 개에 빛나는 웹사이트 분석론의 베스트셀러로서 웹 마케터, 기획자, 영업팀원, CEO, 웹 디자이너 등 온라인 비즈니스 종사자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아비나쉬 카우식 저/ 정유진 역/ 에이콘/ 536쪽/ 3만 원

프로그래밍 관련 베스트셀러 순위

순위	도서명 / 출판사
1위	웹 개발자를 위한 스프링 2.5 프로그래밍 가메출판사
2위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 The Pragmatic Programmer [재출간판] / 인사이트
3위	CODE COMPLETE 2/E / 정보문화사
4위	Head First Design Patterns : 스토리가 있는 패턴 학습법 / 한빛미디어
5위	예제로 배우는 Adobe 플렉스(개정판) 에이콘
6위	린 소프트웨어 개발의 적용 : 속도 경쟁에서 승리하기 / 위키북스
7위	GoF의 디자인 패턴(개정판) : Design Patterns : Elements of Reusable Object-Oriented Software /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8위	테스트 주도 개발 : Test-Driven Development [재출간판] / 인사이트
9위	자바 병렬 프로그래밍 : 멀티코어를 100% 활용하는 / 에이콘
10위	GoF 디자인 패턴! 이렇게 활용한다 : C++로 배우는 패턴의 이해와 활용 에이콘

* 강남컴퓨터서적(kangcom.com)을 통해 판매된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 순위(8월 20일 현재)

잡성은 늘어갔으며, 지속적으로 테스트의 어려움이 증가했던 것이다. 결국 성능 좋은 서버장비 구입 및 EJB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로드 존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EJB 없는 J2EE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하게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경량 컨테이너와 IoC(Inversion of Control) 및 오픈 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EJB 활용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http://springframework.org/>)를 소개하면서 AOP(Aspect Oriented Programming)를 바탕으로 각종 JavaEE 스펙에 치중되지 않는 POJO(Plain Old Java Object) 기반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JavaEE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트랜잭션 관리, 퍼시스턴트, 웹 티어 디자인, 테스트, 성능과 확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솔루션들의 장단점들을 구체적으로 비교, 효과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결국 효율적인

JavaEE 개발을 위한 로드 존슨의 고민의 결정체이니 말이다. 그의 치열한 고민에서 나온 해결책들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는 효과적으로 경량 컨테이너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JavaEE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던지 알아보는 것은 더욱 효과적인 JavaEE 기반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아직 번역서가 없는 이 책이 부담스러운 독자들은 『J2EE 설계와 개발』이란 책을 먼저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 책은 JavaEE에 대한 그의 철학을 주로 담고 있으며, 『J2EE Development without EJB』는 철학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필자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독자들에게 이 책에 포함된 로드 존슨의 사상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근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장선진 <http://java2game.com>, jangsunjin@java2game.com |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함께 나누고 싶은 꿈을 가진 개발자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디자인 패턴 등에 관심이 많다.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의 지름길 제시

『프리젠테이션 켄』역자 정순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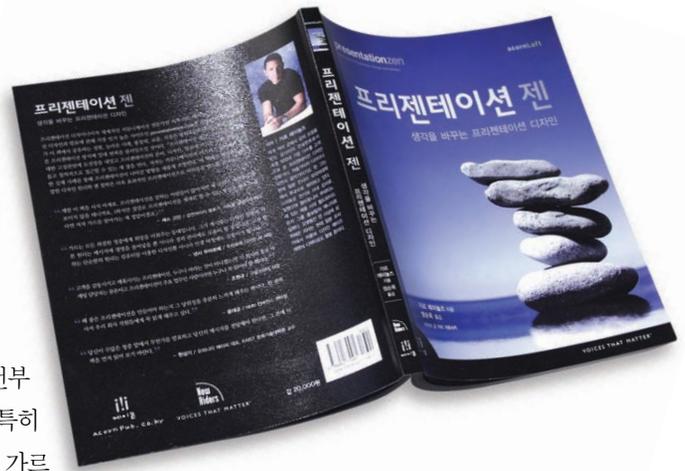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_ 오래 전부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프리젠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이 책의 저자 가르 레이놀즈가 운영하는 블로그(presentationzen.com)가 좋은 참고가 됐다. 때문에 평소에도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인들에게 이 사이트를 추천하곤 했다. 프리젠테이션 켄의 원서가 출간됐을 즈음에도 ‘누군가 이 책을 번역해 국내에 출간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그 때 마침 미투데이의 박수만 사장님이 일찌감치 한국어판 번역권을 따놓은 에이콘 출판사를 소개해 줘 역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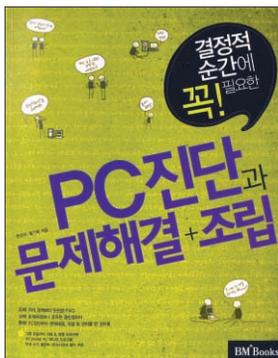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_ 오래 전부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프리젠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이 책의 저자 가르 레이놀즈가 운영하는 블로그(presentationzen.com)가 좋은 참고가 됐다. 때문에 평소에도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인들에게 이 사이트를 추천하곤 했다. 프리젠테이션 켄의 원서가 출간됐을 즈음에도 ‘누군가 이 책을 번역해 국내에 출간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그 때 마침 미투데이의 박수만 사장님이 일찌감치 한국어판 번역권을 따놓은 에이콘 출판사를 소개해 줘 역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왜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이 중요한가 _ 잘 못하는 프리젠테이션은 듣는 이들의 성격을 나쁘게 만든다. 상대의 체면과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정서상 “발표를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으니 발표 시간 내내 속으로 투덜거리다 보면 성격이 좋아질리 없으니 말이다. 반면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은 청중으로 하여금 ‘더 듣고 싶다’는 지적 욕구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욕까지 심어준다. 청중을 열광시킬 수 있는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좋은 프리젠테이션의 포인트는 _ 저자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컴퓨터를 꺼라”라고 충고한다. 프리젠테이션의 형식을 갖추는 것 보다 발표 내용의 핵심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인데, 생각할수록 마음에 와 닿는다. 내용의 핵심이 확실하다면 꼭 컴퓨터와 프로젝터가 없어도 다양한 발표의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슬라이드를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



이 책의 발견



문성욱, 월기혁 저

사이버출판사

520쪽

2만 5,000원

결정적 순간에 꼭! 필요한 PC진단과 문제해결+조립 생산자가 되어가는 소비자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 말하는 ‘프로슈머(Prosumer)’였다. 나 역시 PC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PC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결하곤 한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쌓은 지식 등 바탕이 없다면 한계를 느끼는 것이 사실. 이 책을 처음 본 순간 PC대리점에서 일하는 AS 기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읽다보니 AS 기사들에게도 유용하겠지만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책이기도 했다. 이제는 자신의 PC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소비자가 스스로 생산한다는 프로슈머의 개념이 여기에도 있었다.

PC에 이상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유사한 경우를 검색하고 해결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설명이 난해하거나 잘못된 경우도 많아 시간만을 낭비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부팅이 되지 않는 상황이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손발을 묶고 싸워야 하는 기분이 들기까지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을 집에 한 권씩 비치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빠르게 해결하는 불량PC 바로잡기’나 ‘이상 증상 문제해결 FAQ’ 등은 PC의 다양한 이상증상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시 낭비되는 시간을 벌여줄 것이다.

PC의 이상 증상을 고치기만 한다고 해서 프로슈머가 될 수는 없다. 프로슈머가 되기 위해서는

드는 법에 대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잡한 개념이나 많은 수치를 표시하려면 슬라이드가 결코 심플해질 수 없다며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아”라는 분들도 간혹 있다. 저자는 복잡한 내용은 차라리 별도의 유인물에 넣어 배포하라고 권하고 있다. 좀 어렵지만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효율적인 활용법은 _ 프리젠테이션 쟀에는 다른 많은 서적이 인용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중에 번역된 책이 적지 않다(책 번역 과정에서 이 점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프리젠테이션에 승부를 걸고 싶은 이들이라면 그 책들도 함께 읽어보길 추천한다.

실제로 훌륭한 발표를 보는 것 만큼 효과적인 교육은 없다. ted.com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시리즈와 저자의 블로그 presentationzen.com에 소개되는 다양한 형식의 강연 비디오를 참고하면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lideshare.net에서 좋은 슬라이드의 예를 접할 수 있다.

청중을 집중시키는 프리젠테이션의 비결

가르 레이놀즈가 이 책을 통해 전하는 놀라운 사례, 통찰력, 교훈, 지침은 기존 프리젠테이션 방식에 변혁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준비, 디자인, 발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새롭고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프리젠테이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프리젠테이션의 균형잡힌 디자인 원리와 쟀 철학이 더욱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으로 인도할 것이다.

가르 레이놀즈 저/ 정순옥 역/ 에이콘/ 248쪽/ 2만 원

무엇보다 자신의 PC를 직접 조립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PC 부품의 선택은 물론 조립하는 것을 어려워 하는데, 이 책에서는 PC를 처음 조립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친절하게 설명한다. 필자 역시 이 책을 보는 동안 약간 어렵게만 생각했던 PC 조립에 대해 ‘나도 직접 해 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밖에도 파티션을 나누고 윈도우를 설치하는 과정도 예제 사진과 함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평소 가장 어렵게 느꼈던 레지스트리 관리에 대한 친절한 설명 덕분에 레지스트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기초 지식을 익혀 PC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 PC를 사용할 때 유용하도록 따라하기로 구성된 부분의 적절한 조합은 일반적인 PC 사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많은 내용을 담은 만큼 조금만 더 디테일을 살려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물론 필자를 비롯한 소비자의 마음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책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프로슈머를 위한 또 하나의 PC 서적 ‘PC진단과 문제 해결+조립’ 때문에 전국의 많은 AS 기사들이 긴장할 것 같다.

정재훈 dearbiz@dearbiz.com | 건국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엔지니어리스 이사를 역임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디어비즈 하이컴AS의 대표를 맡고 있다.

기대되는 책

디자이너를 디자인하는 웹 스타일 북



웹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소스를 제시하는 이 책은 웹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이론부터 다양한 툴을 활용한 인터페이스 구성까지 모든 것을 알려준다. 웹 디자인을 위한 콘셉트 도출, 아이디어 회의 등 디자인 창출을 위한 실무 과정을 포함, 고품질의 예제 등 웹 디자이너를 위한 모든 것이 수록돼 있다.

안병국 저/ 윌북/ 352쪽/ 2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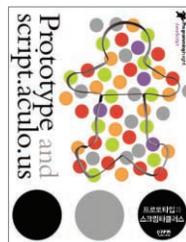
돈 되는 오픈마켓 실무 지침서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오픈마켓은 창업은 쉽지만 가격 경쟁이 치열해 주 목적인 ‘이윤’을 창출하지 못할 위험성도 크다. 이 책은 오픈마켓 초보 판매자들이 판매할 때 실수로 손해 보기 쉬운 부분, 광고 마케팅 팁 등과 같이 실질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특히 쉽고 명쾌한 해설로 오픈마켓 대박 판매자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장용준 저/ 영진닷컴/ 328쪽/ 1만 5,000원

프로토타입과 스크립타쿨러스



자바스크립트 개발에서 필수적인 라이브러리인 프로토타입과 스크립타쿨러스. 하지만 아직 이 두 라이브러리에 대한 문서가 부족한 것이 사실. 이 책은 이들 라이브러리의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다양한 예제들은 단순히 기능 하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기능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알려준다. 더불어 단점과 그 단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유용하다. 초급 개발자라면 예제를 통해 원리부터 이해할 수 있고, 고급 사용자들은 몰랐던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토퍼 포트누브 저/ 박영록 역/ 인사이트/ 480쪽/ 2만 5,000원